

주부들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결혼 만족도와 라이프스타일 및 심리적 변인의 영향

이금실 · 남미우*

장안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서경대학교 미용패션학부 부교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결혼 만족도가 주부들의 자아존중감, 라이프스타일, 재정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주부들의 명품 구매 행동,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한다.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부를 대상으로 258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만족도변인의 요인분석 결과, 만족한 결혼 생활, 불만족한 결혼 생활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재정 스트레스변인은 기본지출 스트레스 및 예비지출 스트레스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주부의 결혼만족도 2개의 요인의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 결과 2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이 연령이나 결혼연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재정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 연예인 모방 행동, 결혼만족도에서 의미 있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셋째,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우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모 관심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의존성요인의 경우, 외모 관심, 예비지출 스트레스 정(+)의 영향을, 명품 구매 행동에 영향은 외모 관심이 정(+)의 영향을, 경제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의 경우 연예인 모방행동에 외모 관심이, 심리적 의존성에는 외모 관심, 예비지출 스트레스, 명품 구매 행동에 대해 외모관심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결혼 만족도, 연예인 모방행동, 명품브랜드구매행동,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라이프스타일

I.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경제적 지위 또한 향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로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는 증가하였고, 또한 가사노동의 감소 등은 주부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지만은 않았다.¹⁾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한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다양한 역할 갈등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이나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어 그 사회의 안정에 지장을 주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부들의 정서적인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주부들이 받는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복의 구매나 착용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유행 요법을 통하여 심리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주부들이 느끼는 갈등이나 부담감은 의복의 착용이나 구매 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부들은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혼 여성을 나타내는 신조어로 줌마렐라(zumarella), 루비(ruby)족 등은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진취적인 여성으로 자기관리와 자기 계발에 철저하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주부들을 말한다. 특히 루비족은 신선함(refresh), 비범함(uncommon), 아름다움(beautiful), 젊음(young)의 단어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말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던 예전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자기 자

신을 가꾸는데 열성적이어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미용 시술을 애용하고, 실제보다 어려 보이기 위해 젊은이들의 옷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는 등,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²⁾ 이러한 루비족은 KBS TV 주말연속극 『엄마가 빨났다』에서 장미희 등의 연예인을 통해 더욱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장미희가 입었던 옷과 보석은 대부분 매진되었고, 『꽃보다 남자』에서 당당한 기업 회장으로 분한 이해영이 걸치고 나온 제품들의 해당 브랜드에는 문의가 빗발쳐,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부들의 여가 유형으로 나이가 들수록 TV시청이 높아³⁾ 이는 주부들의 연예인 모방 행동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은 의복을 잘 착용했다고 느낄 때, 개인은 만족감과 자신감이 생겨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의복이 주는 느낌, 기분, 분위기에 의해 감정 변화가 민감하게 영향 받는 행동을 심리적 의존성이라 하는데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부들의 경우 의복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모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명품을 착용함으로써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이승희 외(2003)⁴⁾는 타인에 대한 과시, 준거집단과의 동일시, 소속감, 사회적 안정감 등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명품을 구매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최근에는 명품 선호 행동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적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결혼에 대한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이 혼재함으로, 이러한 갈등이 이혼율을 증가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결혼 만족도는 가정의 해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두 가지 문제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⁵⁾ 주부들의 결혼 생

활에 대한 만족여부는 전통적인 역할과 기대되는 현대적인 주부의 역할 개념의 갈등을 조화롭게 잘 가꾸어나가는가에 달려있고 이는 가정의 기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복행동은 심리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부의 심리적 상태의 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변수로 작용하여 의복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지현(2002)⁶⁾은 결혼 만족도와 의복행동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면 의복행동에 있어 정숙성을 추구하는 성향은 낮아지고 흥미성을 추구하는 성향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기대와 충족요인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주부역할변화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결혼 만족도도 달라질 것이며 또한 의복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며 관리하는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되어 연구되어져왔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의복행동 변인이 포함되어 연구되어졌다. 최근 주부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와 결혼에 의한 사회 환경적 역할 변화 및 행동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적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부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기획에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 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주부들은 결혼 만족도에 따라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자존감, 라이프스타일은 달라질 것이며 또한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를 결혼 생활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한 변인으로 보고, 첫째, 주부들의 결혼 만족도에 따라 주부들의 자존감, 경제적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 둘째, 결

혼 만족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에서 명품 구매 행동,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 경제적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요인을 규명하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도는 결혼 적응, 결혼 안정성, 결혼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한다(변미희, 강기정, 2010)⁷⁾. 결혼 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되는데 객관적 평가는 개인이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결혼의 결과 사이의 일치정도로 정의되며 주관적 평가는 개인이 결혼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적 측면의 결혼 만족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결혼 만족도는 구체적으로 이영숙, 박경란(2009)⁸⁾은 배우자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조은경, 정혜정(2009)⁹⁾은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결혼 만족도는 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 주관적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혼 만족도는 중년기 여성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 사회적 변수이고(조성희, 박소영, 2010)¹⁰⁾, 일반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군, 자아존중감, 자아분화,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변인군, 의사소통, 성격특성, 성생활 만족도와 같은 부부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변인군,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변인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Spanier(1976)¹¹⁾는 결혼 만족(이들은 결혼 적응이라 부름)을 부부간 의견일치, 관계 만족, 응집력, 및 애정표현 등의 4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경성 외(2001)¹²⁾는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결혼 만족도가 결혼 생활만족, 애정, 및 개입(commitment) 등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결혼 만족도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수입,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소는 결혼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많은 선행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긴장은 부부간의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절대적 수입보다는 수입에 대한 주관적 만족 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타났다(Lewis and Spanier, 1979)¹³⁾. 안동선(1982)¹⁴⁾은 주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송말희, 이정우, 1986¹⁵⁾; 최규련, 1988¹⁶⁾)를 보면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거나 노년기에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결혼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2. 심리적 변인

1) 자존감

스탠리 코퍼스미스(Stanley Coopersmith, 1967)¹⁷⁾는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표현되며,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아실현, 개인의 적응, 건강한 성격발달, 자아 및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로 인간행동을 결정, 설명, 예언하는데 도움을 주

고, 개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폭 넓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고 자신을 매우 훌륭하게 평가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결혼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결혼 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며 결혼 만족도가 낮을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서 우울성향도 증가한다.¹⁸⁾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 간의 연구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외모향상을 위하여 의복의 심미성, 유행, 성적 매력을 중시하였고(전경란, 이명희, 2003)¹⁹⁾,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구, 윤학자, 1986)²⁰⁾. 따라서 결혼 만족도가 높은 주부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며 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명품 구매행동이나 연예인 모방행동 그리고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도 낮을 것이다.

2) 재정 스트레스

주부들은 가족 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주부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는 주부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주부 스트레스의 공통적인 영역으로서 배우자관계,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 문제, 가사노동 문제 및 건강 문제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경희 외(1995)²¹⁾는 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속성은 경제적 부담감, 시댁에 대한 의무감, 역할 부담감, 임신의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에게 경제적요인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백은영(2004)²²⁾은 경제적 스트레스 또는 경제적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긴장감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재정 스트레스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육체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재정적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육체적 고통이나 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런 재정 상태는 여러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 시키는 근원으로 알려져 왔다. 박혜순(1990)²³⁾은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선이(1995)²⁴⁾와 임은옥(1993)²⁵⁾은 인생에 대한 느낌에 따라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달리 받아들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행복하게 느끼는 집단과 비판적으로 느끼는 집단에서 생활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혜순(1990)²⁶⁾은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결혼 상태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결혼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주부는 적응을 잘하는 주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 만족한 주부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특정한 방법에 의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대처 방식은 자기조절/문제해결, 종교적 지원추구, 수동적수용/체념, 정서적 지원추구, 인내/고집, 정서표출, 자기비판/자책, 하향비교의 8개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구, 김교현, 2003)²⁷⁾.

주부가 가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이제까지 스트레스의 대처 행동의 한 유형으로서 스트레스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나 많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부들은 의복의 착용이나 구매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스트레스의 대처 방법으로 의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 불만족한 주부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주

부들의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를 높이거나 의복을 통해 과시하는 명품 구매행동이나 연예인 모방행동을 통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주부들의 스트레스와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부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소비자행동을 이해하고 설명,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단순한 소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생활자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복합적인 생활의 주체로 이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활동, 견해,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인 라이프스타일은 현대인의 의복행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은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요인의 총체로서 나타나는데,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사회적 변수와 개성, 자아개념, 자아 등의 개인적 변수의 상호 작용이라고 했다. 라이프스타일은 사회 전반의 모든 현상에 적용되어 연구되었는데, 의복의 착용이나 구매,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패션 라이프스타일로 정의한다.

주부들은 교육과 소득수준의 증대로 전통적인 라이프스타일에서 탈피해 가고 있다. IT의 발달은 가정기기의 자동화로 주부들의 생활패턴을 바꾸고 있고, 자녀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여 핵가족 단위의 여가추구와 자기중심적 라이프스타일이 발견된다.²⁸⁾ 구양숙 외(2001)²⁹⁾는 신세대 주부의 패션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상표 및 타인 지향, 감각독립 지향, 첨단 정보 매체 지향, 계획 개성 지향, 실용편이 지향, 알뜰구매지향으로 구분하였고, 나운규, 오완근(2010)³⁰⁾ 20~40대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성공 및 건강 추구성향, 브랜드 및

유행추구성향, 현실추구성향, 전통성추구성향, 편리성추구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라이프스타일을 시장세분화를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주부들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하며 이때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으로 주부들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구매 시의 경제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제성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4. 주부들의 의복행동

의복은 외모를 향상시키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자신감과 안정감 등 의복 착용자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의복행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명품 구매 행동, 연예인 모방행동을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주부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의복의 선택이나 착용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 후의 경제 상태는 의복의 선택이나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주부들의 의복행동, 특히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의 주부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연예인스타일을 모방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워너비(want to be) 스타일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한편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해외명품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현상유지이거나 5%정도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명품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어 명품 소비가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에서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³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명품 소비행동,

연예인 모방행동, 심리적 의존성 등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연예인 모방행동

매체의 발달은 대중의 이상형인 셀리브리티(celebrity)를 만들어내고 셀리브리티들은 연예인 뿐 만 아니라 정치인 스포츠 스타 등을 포함하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여 대중에게 친숙한 사람으로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유행과 패션스타일을 선도하고 유행의 주체가 되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³²⁾ TV를 통해 보이는 연예인들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스타마케팅이며 이는 할리우드에서 개발한 마케팅 기법이다.³³⁾ 대중 스타와 관객의 관계유형은 감정적 친화, 자기 동일시, 모방, 투사단계가 있는데 감정적 친화는 관객이 특정 주인공에게 애착심을 느끼는 감정 몰입상태이고 자기 동일시는 관객이 자신을 스타와 동일한 상황과 인물로 생각하는 감정을 가질 때 일어난다. 모방은 관객이 연예인의 의복, 머리모양, 동작 등을 따라하는 것이며, 모방을 넘어 투사 정도가 심해질수록 좋아하는 스타에 몰입된 삶을 살게 되므로 TV의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이수경, 권수애, 2009)³⁴⁾. 연예인 모방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은 탤런트, 대중가수들의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고(백형중, 2002)³⁵⁾,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을 이상적 모델로 삼아 이들의 외모, 태도,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도 있다. 한편, 연예인 모방행동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취미생활 중 하나로 연예인 모방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욕구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 모방행동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주부들 또한 TV매체에 노출 빈도가 높아 연예인을 통해 새로운 패션을 받아들이고 모방행동을 통해 스트레스 등을 해

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여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예인 모방행동연구는 주부들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심리적 의존성

정희용(1987)³⁶은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을 의복이 주는 느낌, 기분, 분위기에 의해 감정 변화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즉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은 의복을 통해 좋은 느낌을 받거나, 기분전환을 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등 의복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에 의존하려는 태도이다. 의복을 잘 착용했다고 느낄 때, 만족감과 자신감이 생겨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적 의복의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고 감상적이므로 의복에 따른 동요가 심하여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그들의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심리적 의존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사적 자의식과 지능이 높을수록 의복이 주는 느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아, 강영의(1994)³⁷의 연구에는 농촌의 주부보다는 도시의 주부일수록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 김순구, 윤학자(1986)³⁸는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의존성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하여 유능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경우 의복에 의해 기분이나 정서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 만족한 주부들의 경우 자존감도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의복의존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결혼 생활 불만족한 경우,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의복에 의한 동요가 심하여 의복

의존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3) 명품 구매행동

국내 경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외국의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현상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명품이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고가의 수입 유명상품의 제품을 의미한다.³⁹ 상류층은 해외명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구매력이 부족한 계층에서는 계층이동을 위한 모방적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했다(이준영, 김난도, 2007)⁴⁰. 최선형(2001)⁴¹은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준거집단의 우월감을 얻고 부를 전시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였다. 이승희 외(2003)⁴²는 타인 중심적 소비가치를 가진 사람은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당히 잠재되어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명품은 브랜드 개성을 통해 자아확장 혹은 자존심을 높이고 감정적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 즉 소비자들은 명품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을 남들과 다르게 구별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자한다(Douglas B. Hault, 1995)⁴³. 명품 소비행동은 주로 물질주의, 과시적 소비성향,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과 함께 연구가 되어졌다. 최선영(2001)⁴⁴은 나이가 많을수록 패션명품 관여도와 패션 명품 소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채진미, 이은영(2005)⁴⁵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해외명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선(2007)⁴⁶은 패션 명품은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명품에 대한 태도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주로 연구 대상자가 여대생에 제한되어 있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 방법으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들의 결혼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결혼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한다. 셋째, 결혼 만족도 요인에 의하여 구분되어진 집단에서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과 재정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 의복 행동변인(연예인 모방행동,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명품 구매행동)의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결혼 만족도 요인에 의하여 구분되어진 집단에서 의복 행동 변인(연예인 모방행동,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명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 자존감, 재정 스트레스, 인구통계적 변인을 규명한다.

2. 용어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연구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의 구성은 <표 1>과 같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아주 그렇지 않다 에서 5점 아주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 결혼 만족도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행복, 만족, 즐거움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은영(2009)⁴⁷⁾, 이선정(2000)⁴⁸⁾의 연구에서 44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재정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미례(2000)⁴⁹⁾의 연구에서 10문항을 본 연구의 응답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재정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 또는 경제적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긴장감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⁵⁰⁾ 유을용(2003)⁵¹⁾의 연구에서 13개 문항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피험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의복행동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습관, 선택 및 착용의 행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행동의 하위 변인을 다음과 같이 연예인 모방행동, 의복 심리적 의존성, 명품 구매 행동 등의 3가지로 구분한다. 연예인 모방행동은 연예인의 의복이나 액세서리 등을 따라하거나 소유,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며 이미숙(2000)⁵²⁾의 연구에서 3문항을 인용하였고 두 문항은 제작하고 본 연구의 응답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 집단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은 의복이 기분의 변화에 주는 영향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해소를 위한 의복착용 및 구매를 의미하며 이미숙(2000)⁵³⁾의 연구에서 5문항을 인용하였다. 명품 의복 구매 행동은 값이 비싼 명품을 가치 있다고 인정하거나 구매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홍희숙(1995)⁵⁴⁾, 이형미(1999)⁵⁵⁾의 연구에서 4문항, 1문항은 본 연구의 응답자에 적합한 문항을 연구자가 제작하여 의류전문가 집단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 라이프스타일

의복과 외모에 신경을 쓰는 외모지향형 라이프스타일과 쇼핑 전에 계획을 세우고 구매 시 물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구매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이 포함되며, 한성지, 김문숙(2002)⁵⁶⁾의 연구에서

<표 1> 연구 변인의 출처와 문항 수

변인명		출처	문항 수
결혼 만족도		이은영(2009), 이선정(2000)	44문항
심리적 변인	자아존중감	최미례(2000)	10문항
	재정 스트레스	유을용(2003)	13문항
의복행동변인	연예인 모방행동	이미숙(2000)	3문항
		연구자	2문항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이미숙(2000)	5문항
	명품 의복 구매 행동	홍희숙(1995), 이형미(1999)	4문항
연구자		1문항	
라이프스타일		한성지, 김문숙(2002)	8문항

8문항을 발췌, 본 연구의 응답자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부 300명을 편의추출하였다.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258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방법으로 SPSS(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k-means 군집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다음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령은 40세 이하 39명(15.2%), 41~50세 91명(35.4%), 51세 이상 127명(49.4%)으로 40대 50대가 84.8%로 비교적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뉴시니어 세대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외모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중요한 소비계층이라고 했다(최정원, 2010)⁵⁷⁾. 결혼연수는 10년 미만 25명(9.7%), 10~20

년 미만 47명(18.3%), 20~30년 미만 122명(47.5%), 30년 이상 63명(24.5%)으로 결혼 연수는 20년 이상이 72%를 차지했다. 결혼형태는 연애가 143명(55.6%), 중매가 97명(37.7%)으로 나타났고, 교육 정도는 고졸 미만 16명(6.2%), 고졸 86명(33.5%), 대졸 126명(49.0%), 대학원 이상 29명(11.3%)으로 대졸 이상이 60.3%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32명(12.5%), 200-300만원 미만 43명(16.7%), 300-400만원 64명(24.9%), 400만원 이상 118명(45.9%)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유 133명(51.8%), 무 124명(48.2%)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도가 161명(62.6%), 서울이 96명(37.4%)으로 나타났다.

1. 연구변인의 요인분석결과

1) 결혼만족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혼만족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925.921$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916으로 나타났다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40세 이하	39	15.2
	41~50세	91	35.4
	51세 이상	127	49.4
결혼연수	10년 미만	25	9.7
	10~20년 미만	47	18.3
	20~30년 미만	122	47.5
	30년 이상	63	24.5
결혼형태	연애	143	55.6
	중매	97	37.7
	기타	17	6.6
교육정도	고졸미만	16	6.2
	고졸	86	33.5
	대졸	126	49.0
	대학원 이상	29	11.3
월수입	200만원 미만	32	12.5
	200~300만원 미만	43	16.7
	300~400만원 미만	64	24.9
	400만원 이상	118	45.9
직업	유	133	51.8
	무	124	48.2
거주지	서울	96	37.4
	경기도	161	62.6
계		257	100.0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 선택하였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4 이상인 경우를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 1(30.717%)은

나는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족한 결혼 생활'로 명명하였고, 요인 2(20.590%)는 나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남편은 나를 매우 신경질나게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불만족한 결혼 생활'로 명명하였다. 이 2개의 요인의 적재값이 ± 0.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나 총 설명력이 51%이고 요인분석 과정에서 많은 문항이 두 개 요인에 모두 높게 부하되어 누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결혼에

<표 3> 결혼만족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요인	
	만족한 결혼 생활	불만족한 결혼 생활
15. 나는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814	.175
44. 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794	.319
23. 나의 결혼 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793	.260
28. 나의 결혼 생활은 나 자신이 결혼 전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758	.138
20. 지금까지 나의 결혼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732	.297
16. 나의 결혼 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더 많이 준다.	.718	.235
31. 우리 부부의 애정표현은 서로 마음에 든다.	.706	.205
24. 나는 남편에게 진실로 관심을 기울인다.	.659	.214
13.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결혼 생활은 더 만족스러워 질 것이다.	.654	.012
17. 결혼 생활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137	.730
10. 나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104	.690
18. 남편은 나를 매우 신경질나게 한다.	.181	.673
40. 나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렵다.	.318	.608
9. 결혼 생활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235	.599
7. 현재의 결혼 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한다.	.042	.594
14. 나는 결혼 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쳤다.	.280	.572
26. 나는 남편과 이혼하게 될까봐 두렵다.	.121	.424
고유값	5.222	3.500
분산변량%	30.717	20.590
누적변량%	30.717	51.307
신뢰도	.911	.787

KMO =0.916, Bartlett's test결과 $\chi^2=1925.921(df=136, Sig.=0.000)$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요인
	자아존중감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65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755
2.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716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703
9. 나는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느낀다.(R)	.673
3.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R)	.662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R)	.651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635
고유값	3.881
분산변량%	48.511
누적변량%	48.511
신뢰도	.846

KMO =0.863, Bartlett's test결과 $\chi^2=689.059(df=28, Sig.=0.000)$

<표 5>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요인	
	기본지출 스트레스	예비지출 스트레스
2. 각종 요금(통신비,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891	.197
3. 자녀의 용돈을 줄 때 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다.	.845	.259
1. 자녀의 학교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럽다.	.750	.289
9. 장차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이 부담이 된다.	.215	.864
10.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하다.	.279	.792
11. 수입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	.224	.760
고유값	2.245	2.140
분산변량%	37.410	35.673
누적변량%	37.410	73.083
신뢰도	.815	.747

KMO =0.797, Bartlett's test결과 $\chi^2=662.546(df=15, Sig.=0.000)$

대한 개념 또는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도 풀이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대상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결혼만족도 변인의 측정변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심리적 변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자아존중감 변인의 요인분석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2개 이상의 요인에서 높은 부하량을 갖는 것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신뢰도 .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표 4>와 같다.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0.4이하거나 두 개의 요인에서 부하량이 높게 나온 것은 모두 제외하였다. 그 결과 7개 문항이 제거,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 1(37.410%)은 '기본지출 스트레스'로 명명하였고, 요인 2(35.673%)는 '예비지출 스트레스'로 명명하였고 <표 5>와 같다.

3)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 1(28.663%)은 '경제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23.868%)는 '외모관심'으로 명명하였고 <표 6>과 같다.

4) 의복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의복행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 1(18.620%)은 '명품 구매 행동'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18.402%)는 '연예인 모방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14.966%)은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으로 명명하였고 <표 7>과 같다.

2. 결혼만족도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

다음 <표 8>은 주부의 결혼 만족도 결과로 나타난 만족한 결혼 생활, 불만족한 결혼 생활의 2개

<표 6> 의복구매 및 외모관련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요인	
	경제성	외모관심
8. 나는 필요한 물품은 계획을 세워서 구입한다.	.802	-.009
7. 나는 쇼핑 전에 구입할 물품의 목록을 꼼꼼하게 적는다.	.782	-.091
6. 나는 물품을 사는데 가능하면 여러 상점을 둘러본다.	.712	.108
5. 나는 작은 물품이라도 가격을 살펴 본 후에 구입한다.	.659	.204
2. 나는 옷을 입을 때 항상 화장과 장신구도 고려한다.	.002	.786
1. 나는 외모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138	.728
3. 나는 몸치장을 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	.120	.691
4. 나는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249	.472
고유값	2.293	1.909
분산변량%	28.663	23.868
누적변량%	28.663	52.530
신뢰도	.738	.602

KMO=0.655, Bartlett's test 결과 $\chi^2=415.009(df=28, Sig.=0.000)$

<표 7> 의복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요인		
	명품 구매행동	연예인 모방행동	의복심리적 의존성
31. 나는 값이 싼 여러 벌의 옷보다는 명품 한 벌을 사겠다.	.825	.086	.008
3. 값이 비싸더라도 유명브랜드의 의류를 선택하는 편이다.	.807	.198	.001
38. 나는 주로 잘 알려진 상표의 의류제품을 구매한다.	.671	.191	.303
17. 비싼 옷이 역시 품질도 좋다고 생각한다.	.583	.019	.325
10. 유명상표의 옷을 사면 남들이 알아주는 맛에 비싸더라도 사게 된다.	.581	.230	.313
8.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외모나 옷차림을 따라해 보고 싶다.	-.010	.711	.249
29. 나는 항상 연예인들의 옷차림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133	.697	.255
15. 나는 연예인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다.	.320	.681	-.093
36. 나는 연예인의 외모와 내 외모를 비교하곤 한다.	.045	.679	.159
22. 나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미장원에 다니고 싶다.	.284	.585	.034
9. 나는 새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074	.311	.677
16.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037	.122	.617
30. 나는 멋있는 옷이 별로 없어서 불만스러울 때가 있다.	.198	-.215	.603
23. 나는 옷차림에 따라 기분이 명랑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180	.405	.571
37. 나는 우울할 때 옷을 사면 기분전환이 된다.	.226	.211	.507
고유값	2.793	2.760	2.245
분산변량%	18.620	18.402	14.966
누적변량%	18.620	37.022	51.987
신뢰도	.798	.757	.659

KMO=0.849, Bartlett's test 결과 $\chi^2=1088.695(df=105, Sig.=0.000)$

<표 8> 각 요인별 군집의 반응

구분	군집				t-value
	군집1(N=114)		군집2(N=143)		
	M	SD	M	SD	
만족한 결혼 생활	3.15	.650	3.79	.521	-8.678***
불만족한 결혼 생활	4.23	.439	4.04	.423	3.448**
결혼만족도 유형화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		

** p<.01, *** p<.001

의 요인별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요인점수를 바탕으로 집단의 수를 나누어 본 결과 2개의 경우 표본의 수가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에 따른 결혼 만족도 변인의 차이를 보기 이전에 각 집단에서의 요인의 평균점수를 보면 두 개 집단 모두 결혼 생활 불만족 요인의 점수가 만족 요인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주부들이 결혼 생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이 결혼 만족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또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연령이 40세 이상이 84.8%, 결혼 연수가 20년 이상이 많은 72%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혼 만족도 요인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연령이 높거나 결혼 기간이 길거나, 경제적 긴장감 등이 결혼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결혼 기간, 응답자의 연령 등에 따른 만족도 차이와 의복행동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군집1은 군집2와 비교해 볼 때, 불만족한 결혼 생활에 대한 점수가 높고, 만족한 결혼 생활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나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군집2는 군집1과 비교해 볼 때, 만족한 생활 요인에 대한 점수가 높고, 불만족한 생활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나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결혼만족도 군집에 따른 차이분석

다음은 결혼만족도에 의해 유형화된 군집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재정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1) 결혼만족도 군집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다음 <표 9>는 결혼만족도 군집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령, 결혼연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저 연령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우 50세 이하가 60.9%로 나타났으나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의 경우 50세 이하가 37.7%, 50세 이상이 62.3%로 나타나 부정적 집단의 연령이 긍정적 집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연수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우 20년 이상이 61.6%이고, 부정적 집단은 85.1%로 나타나 부정적 집단에 결혼 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주부들이 연령이나 결혼연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결혼

<표 9> 결혼만족도 군집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구분		결혼만족도 군집		χ^2 (p)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	
연령	40세 이하	29(20.3)	10(8.8)	14.812** (.001)
	41~50세	58(40.6)	33(28.9)	
	51세 이상	56(39.2)	71(62.3)	
결혼연수	10년 미만	20(14.0)	5(4.4)	17.737*** (.000)
	10~20년 미만	35(24.5)	12(10.5)	
	20~30년 미만	59(41.3)	63(55.3)	
	30년 이상	29(20.3)	34(29.8)	
결혼형태	연애	87(60.8)	56(49.1)	4.039 (.133)
	중매	49(34.3)	48(42.1)	
	기타	7(4.9)	10(8.8)	
교육정도	고졸 미만	6(4.2)	10(8.8)	2.354 (.502)
	고졸	48(33.6)	38(33.3)	
	대졸	72(50.3)	54(47.4)	
	대학원 이상	17(11.9)	12(10.5)	
월수입	200만원 미만	21(14.7)	11(9.6)	2.241 (.524)
	200~300만원 미만	25(17.5)	18(15.8)	
	300~400만원 미만	32(22.4)	32(28.1)	
	400만원 이상	65(45.5)	53(46.5)	
직업	유	77(53.8)	56(49.1)	.567 (.452)
	무	66(46.2)	58(50.9)	
거주지	서울	48(33.6)	48(42.1)	1.976 (.160)
	경기도	95(66.4)	66(57.9)	
계		143(100.0)	114(100.0)	

** p<.01, *** p<.001

형태, 교육정도, 월수입, 직업, 거주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김지현(2002)⁵⁸⁾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간 변수, 즉 연령대와 결혼 기간 그리고 교육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2) 결혼만족도 군집에 따른 자아존중감, 재정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 의복행동, 결혼 만족도 차이
다음 <표 10>은 결혼만족도 군집에 따라 자아

존중감, 재정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 의복행동,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요인인 경제성, 외모관심,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연예인 모방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결혼만족도는 전체문항의 점수의 합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때 불만족한 결혼 생활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은 역점수를 부여하였다(응답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M=2.75).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M=2.94)이 부정적 집단(M=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 결혼만족도 군집에 따른 자아존중감, 재정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 의복행동 차이

구분		결혼만족도 군집				t-value
		결혼 생활 만족		결혼 생활 부정적		
		M	SD	M	SD	
자아존중감		3.86	.479	3.71	.497	2.397*
재정 스트레스	기본지출 스트레스	3.86	.479	3.71	.497	-.226
	예비지출 스트레스	2.28	.768	2.30	.788	-1.374
라이프 스타일	경제성	3.43	.582	3.26	.662	2.211*
	외모관심	3.18	.592	3.03	.579	2.029*
의복 행동	연예인 모방행동	2.38	.598	2.16	.617	2.889**
	심리적 의존성	3.13	.602	3.03	.649	1.290
	명품 구매행동	2.76	.652	2.72	.753	.417
결혼만족도(M)		2.94	.169	2.50	.245	17.035***

* p<.05, ** p<.01, *** p<.001

다. 김지현(2002)⁵⁹⁾의 광주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부들의 결혼만족도 평균 점수는 3.41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응답자의 결혼만족도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의 연령과 결혼 연수가 비교적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아존중감은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M=3.86)이 부정적 집단(M=3.7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며 따라서 기혼 남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⁶⁰⁾고 보고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된다. 라이프스타일의 경제성 요인에 있어서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M=3.43)이 부정적 집단(M=3.26)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모관심에 있어서도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M=3.18)이 부정적 집단(M=3.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연예인 모방행동은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M=2.38)이 부정적 집단(M=2.16)보다 높은 것으로,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내었으나 전체 평균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즉 연예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연예인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따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이 84.8%를 차지하여 연령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정 스트레스는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예비지출 스트레스보다 기본지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결혼만족도는 주부들의 자아존중감이나, 라이프스타일, 의복행동변인 중 연예인모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연예인 모방행동이나 명품 구매행동 및 심리적 의존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에서 연예인 모방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우 연령과 결혼 연수가 비교적 짧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하거나 또는 연령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결혼만족도 군집별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은 각 변인 간 상관관계와 결혼만족도 군

집별 의복행동(연예인 모방행동, 의복심리적 의존성, 명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

다음 <표 11>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기본지출 스트레스($r=-.297$), 예비지출 스트레스($r=-.323$)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외모관심($r=.207$), 만족한 생활($r=.412$), 불만족한 생활($r=.407$) 및 전체 결혼만족도($r=.207$)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본지출 스트레스는 예비지출 스트레스($r=.093$)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만족한 결혼 생활($r=-.193$), 불만족한 결혼 생활($r=-.268$)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예비지출 스트레스는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r=.182$)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만족한 결혼 생활($r=-.363$), 불만족한 생활($r=-.328$) 및 전체 결혼만족도($r=-.204$)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경제성은 외모관심($r=.134$), 전체 결혼만족도($r=.133$)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외모관심은 연예인 모방행동($r=.430$), 심리적 의존성($r=.415$), 명품구매행동($r=.29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만족한 결혼 생활은 전체 결혼만족도($r=.810$)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불만족한 결혼 생활($r=-.546$), 결혼연수($r=-.13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불만족한 결혼 생활은 자아존중감($r=.407$)과 재정 스트레스(기본지출 스트레스($r=-.208$)), 예비지출 스트레스($r=-.328$), 만족한 생활($r=-.546$), 연예인 모방행동($r=-.14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외에 결혼연수는 전체 결혼 만족도($r=-.180$)와 연예인 모방행동($r=-.170$)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전체 결혼 만족도는 자아존중감($r=.207$), 만족한 생활($r=.810$)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예비지출 스트레스($r=-.204$)와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1>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

구분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2
Q1	1											
Q2	-.297***	1										
Q3	-.323***	.593***	1									
Q4	.103	.002	-.067	1								
Q5	.207**	-.003	-.081	.134*	1							
Q6	.412***	-.193**	-.363***	.108	.107	1						
Q7	.407***	-.268***	-.328***	.007	.021	-.546***	1					
Q8	.207**	-.051	-.204**	.133*	.104	.810***	-.044	1				
Q9	-.032	.082	.095	.054	.006	-.135*	.010	-.180**	1			
Q10	-.054	.032	-.041	-.036	.430***	-.005	-.143*	.092	-.170**	1		
Q11	-.064	.088	.182**	.034	.415***	-.093	-.115	-.028	-.105	.447***	1	
Q12	-.068	-.011	.031	-.087	.295***	-.093	-.056	-.072	-.009	.417***	.458***	1

Q1: 자아존중감, Q2: 기본지출 스트레스, Q3: 예비지출 스트레스, Q4: 경제성, Q5: 외모관심, Q6: 만족한 생활, Q7: 불만족한 생활, Q8: 전체 결혼만족도, Q9: 결혼연수, Q10: 연예인 모방행동, Q11: 심리적 의존성, Q12: 명품 구매행동
* p<.05, ** p<.01, *** p<.001

2)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 <표 12>는 결혼만족도 군집별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저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378, p<.001). 독립변수 중 외모 관심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p<.05). 즉,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연예인 모방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주부들의 연예인 모방행동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354, p<.001). 독립변수 중 외모 관심이 연예인 모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연예인 모방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이나 부정적 집단 모두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연예인 모방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 <표 13>은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이나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 모두에서 외모 관심, 예비지출 스트레스가 심리적 의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외모관심이 높아지고, 예비지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생활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관계없이 외모 관심이 높을수록, 예비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심리적

<표 12>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단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	(상수)	2.305	.565		4.076	.000	8.378***	.206
	자아존중감	-.279	.106	-.223	-2.631**	.009		
	기본지출 스트레스	.011	.074	.014	.143	.887		
	예비지출 스트레스	-.045	.079	-.054	-.561	.576		
	경제성	-.103	.079	-.100	-1.304	.194		
외모 관심	.502	.080	.497	6.247***	.000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	(상수)	1.836	.605		3.036	.003	5.354***	.162
	자아존중감	-.161	.112	-.129	-1.434	.154		
	기본지출 스트레스	.025	.085	.032	.292	.771		
	예비지출 스트레스	-.066	.082	-.087	-.806	.422		
	경제성	-.102	.080	-.110	-1.272	.206		
외모 관심	.455	.092	.427	4.924***	.000			

종속변수: 연예인 모방행동

** p<.01, *** p<.001

<표 13>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단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	(상수)	1.412	.551		2.561	.012	10.710***	.255
	자아존중감	-.082	.103	-.065	-.797	.427		
	기본지출 스트레스	-.038	.072	-.049	-.530	.597		
	예비지출 스트레스	.206	.077	.250	2.659**	.009		
	경제성	-.040	.077	-.039	-.521	.603		
	외모 관심	.536	.078	.527	6.849***	.000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	(상수)	2.278	.638		3.570	.001	5.169***	.156
	자아존중감	-.216	.118	-.166	-1.830	.070		
	기본지출 스트레스	-.107	.089	-.130	-1.195	.235		
	예비지출 스트레스	.192	.086	.242	2.235*	.027		
	경제성	.016	.085	.016	.184	.854		
	외모 관심	.398	.097	.355	4.082***	.000		

종속변수: 심리적 의존성

* p<.05, ** p<.01, *** p<.001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명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 <표 14>는 결혼만족도 군집별 명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우 외모 관심이 명품 구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경제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 관심이 높거나, 경제적이지 못하면 명품 구매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 긍정적 집단에서는 외모에 관심이 많거나 경제적이지 않은 주부일수록 명품을 선호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의 경우 명품 구매에 대해 외모관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명품 선호와 구매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은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우 <표 15>와 같이 부정적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연령이 낮고, 결혼 기간이 짧

으며 자아존중감이 높다. 또한 부정적 집단 보다 연예인 모방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주부들의 의복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결혼 생활에 긍정적 집단과 부정적 집단에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긍정적 집단이나 부정적 집단 모두에서 외모 관심은 주부들의 의복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없이 주부들의 의복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외모 관심과 예비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대책이나 자녀의 결혼 등의 미래에 사용되어질 예비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는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에서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연예인 모방행동을 하고, 경제성이 낮으면 명품에 대한 선호나 구매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14> 명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단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베타				
결혼 생활 만족	(상수)	2.809	.629		4.466	.000	7.196***	.180
	자이존증감	-.198	.118	-.146	-1.687	.094		
	기본지출 스트레스	-.150	.082	-.177	-1.827	.070		
	예비지출 스트레스	.097	.088	.109	1.099	.274		
	경제성	-.225	.088	-.201	-2.566*	.011		
	외모 관심	.494	.089	.450	5.550***	.000		
결혼 생활 불만족	(상수)	2.643	.795		3.326	.001	1.675	.029
	자이존증감	-.203	.147	-.134	-1.378	.171		
	기본지출 스트레스	.010	.111	.011	.093	.926		
	예비지출 스트레스	.008	.107	.008	.072	.942		
	경제성	-.047	.106	-.041	-.443	.659		
	외모 관심	.309	.121	.238	2.551*	.012		

종속변수 : 명품 구매

* p<.05, *** p<.001

<표 15> 결혼만족도에 따른 두 집단의 의복행동

연구변인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	test
인구통계적변인	연령	연령이 비교적 젊다	연령이 비교적 높다	χ^2
	결혼 연수	결혼 기간이 짧다	결혼 기간이 비교적 길다	χ^2
결혼만족도		만족	긍정적 집단에 비하여 낮다	t-value
자이존증감		높다	자이존증감이 만족집단보다 낮다	t-value
라이프스타일	경제성	경제적이고 계획적 구매를 한다	긍정적 집단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낮다	t-value
	외모관심	외모에 관심이 많고 관리를 한다	긍정적 집단과 비교할 때 외모관심이 낮다	t-value
의복행동 차이	연예인 모방행동	결혼 긍정적 집단에서 연예인 모방 행동이 더 일어남		t-value
의복행동 예측	연예인 모방행동	외모관심이 높고(+), 자이존증감이 낮을수록(-)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β
	의복의 심리적 의존도	외모관심(+)이 높고, 예비지출 스트레스가 높을 때(+)	외모관심이 높고, 예비지출 스트레스가 높을 때(+)	β
	명품구매행동	외모관심이 높고(+), 경제성이 낮을수록(-)	외모관심이 높을 때(+)	β

V. 결론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주부들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주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결혼 생활

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한 변인으로 보고, 첫째,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심리적 변인과 라이프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고 둘째, 결혼 만족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에서 주부들의 명품 구매 행동,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연예인 모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한다. 설

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부 300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258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30.717%)은 만족한 결혼 생활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20.590%)는 불만족한 결혼 생활로 명명하였다.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37.410%)은 기본지출 스트레스로 명명하였고, 요인 2(35.673%)는 예비지출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둘째, 주부의 결혼만족도 2개의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 결과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군집 1은 불만족한 결혼 생활에 대한 점수가 높고, 만족한 결혼 생활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나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군집 2는 만족한 결혼 생활에 대한 점수가 높고, 불만족한 결혼 생활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나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결혼만족도 군집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연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p < .01$)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주부들이 연령이나 결혼연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결혼 형태, 교육정도, 월수입, 직업, 거주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넷째, 결혼만족도에 따른 두 집단에서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이 부정적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재정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 연예인 모방행동, 결혼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p < .05$).

다섯째, 결혼만족도 군집별 연예인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

우 외모 관심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의 경우 외모 관심이 연예인 모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여섯째,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이나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 모두의 경우에서 외모 관심, 예비지출 스트레스가 심리적 의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일곱째, 명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의 경우 외모 관심이 명품 구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경제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의 경우 명품 구매 행동에 대해 외모관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만족도는 주부들의 심리적 변인으로 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따라 주부들의 연예인 모방 행동에 차이를 보였고 또한 외모 관심이나 경제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 긍정적 집단에서, 연예인을 모방하고, 경제적이며 외모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결혼 생활에 긍정적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주부들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 변인에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 결과 결혼 생활 긍정적 집단에서 연예인 모방행동은 외모관심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심리적 의존성은 예비 지출 스트레스가 높고 외모관심이 높을 때, 명품 구매 행동은 경제적이지 않고 외모관심이 높을 때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 부정적 집단

의 경우 연예인 모방행동과 명품 구매는 외모관심이 높을 때, 심리적 의존성은 예비 지출과 외모관심이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에게 외모관심은 결혼만족도에 관계없이 주부들의 의복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변인이었고, 재정 스트레스 중 예비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와 관계없이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즉 주부들이 미래의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의복을 통해 기분전환을 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등 의복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에 의한 집단에서 각 의복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설명력이 매우 작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박은경 (1997).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사회교육, 아동교육, 6(2), pp.84-104.
- 2)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어: 주부), 자료검색일 2012. 7. 31. <http://terms.naver.com>
- 3) 최규련 (1984). 주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I, 대한 가정학회지, 22(2), pp.91-102.
- 4) 이승희, 이랑, 정소연 (2003). 패션 명품 브랜드에 대한 구매행동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11), pp.1241-1251.
- 5) 박은경. 앞의 책, pp.84-104.
- 6) 김지현 (2002). 주부의 결혼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환경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6.
- 7) 변미희, 강기정 (2010).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련 요인, 한국 가족 복지학회, 15(2), pp.127-141.
- 8) 이영숙, 박경란 (2009). 기혼 남성의 성격유형, 갈등 대처 방법과 결혼 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pp.275-286.
- 9) 조은경, 정혜정 (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 만족도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pp.105-132.
- 10) 조성희, 박소영 (2010).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8(29), pp.149-174.
- 11)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pp.15-28.
- 12) 이경성, 한덕웅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 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5(2), pp.41-64.
- 13) Lewis, R. A. and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pp.268-269.
- 14) 안동선 (1982).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 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13.
- 15) 송말희, 이정우 (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pp.33-47.
- 16) 최규련 (1984). 주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22(2), pp.91-102.
- 17)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 Francisco:Freeman, p.142.
- 18) Larson, J. H., and Holman, T. B. (1994).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pp. 228-237.
- 19) 전경란, 이명희 (2003). 신체 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6), pp.643-653.
- 20) 김순구, 윤학자 (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pp.1-8.
- 21) 양경희, 정주연, 최선하 (1995). 한국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본질의 근거 이론적 접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6(2), pp.183-196.
- 22) 백은영 (2004). 재정적 스트레스 및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미국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5), pp.161-174.
- 23) 박혜순 (1990). 중년여성의 생활 사건과 정신건강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0.
- 24) 이선이 (1995). 가정주부와 취업주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9(2), pp.69-70.
- 25) 임은옥 (1994). 갱년기 증상과 생활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8(2), pp.1-34.
- 26) 이선경 (1984). 결혼 적응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4.
- 27) 전경구, 김교현 (2003). 한국주부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pp.1-39.
- 28) 현소은, 성예원 (1998). 취업 여부에 따른 주부 소비

- 자 행동 비교연구, 소비자학연구, 9(3), pp.41-57.
- 29) 구윤숙, 박현희, 이승민 (2001). 신세대 주부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유아복 상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복식, 51(1), pp.49-59.
 - 30) 나윤규, 오완근 (2010). 라이프스타일과 브랜드 유형에 따른 패션 점포 속성 및 브랜드 자산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3), pp.97-114.
 - 31) 염동섭, 유승엽 (2012). 한국소비자의 명품소비행동은 어떠한가: 동기, 혜택 및 손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3(3), pp.323-341.
 - 32) 고윤희, 곽태기 (2011). 셀리브리티(celebrity) 패션스타일에 의한 워너비(wannabe) 현상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1), pp.17-36.
 - 33) 장성희, 박현신 (2003). 스타마케팅이 청소년의 패션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강북에 거주하고 있는 1318세대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3(1), pp.1-24.
 - 34) 이수경, 권수애 (2009). 청소년의 연예인 선호이미지와 모방 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pp.419-429.
 - 35) 백형중 (2002). 유명인 광고모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4.
 - 36) 정희용 (1987).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 관심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 37) 윤영아, 강영의 (1994). 농촌, 도시 주부의 의복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과학과 교육, 2(-), pp.33-45.
 - 38) 김순구, 윤학자 (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pp.1-8.
 - 39) 이령경, 권수애, 유정자 (2010). 청소년 소비자의 명품구매행동에 미치는 준거집단의 영향,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3), pp.1-20.
 - 40) 이준영, 김난도 (2007). 명품 소비 욕망: 심층면접을 통한 욕망의 삼각형 이론의 적용, 소비자학 연구, 18(2), pp.41-58.
 - 41) 최선형 (2001). 패션 명품에 대한 태도 연구, 복식문화연구, 9(6), pp.842-854.
 - 42) 이승희, 이랑, 정소연 (2003). 패션 명품 브랜드에 대한 구매행동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11), pp.1241-1251.
 - 43) Douglas B, H. (1995). How Consumers Consume: A Typology of Consumption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1), pp.1-16.
 - 44) 최선영. 앞의 책, pp.842-854.
 - 45) 채진미, 이은영 (2005). 연령과 사회계층 변인에 따른 해외명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빈도, 한국의류학회지, 29(6), pp.842-854.
 - 46) 박혜선 (2007). 물질주의와 과소비 성향이 패션 명품과 복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pp.103-110.
 - 47) 이은영 (2009).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성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2-78.
 - 48) 이선정 (2000). 기혼 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 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2-69.
 - 49) 최미례 (200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와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6.
 - 50) Voydanoff, P. (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5(2), pp.273-288.
 - 51) 유을용 (2002). 도시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수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6-127.
 - 52)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심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4-140.
 - 53) 위의 책, pp.134-140.
 - 54) 홍희숙 (1995). 상황과 소비자 특성에 의한 의류제품 혜택 세분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40-246.
 - 55) 이형미 (1999).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 만족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1-78.
 - 56) 한성지, 김문숙 (2002). 50-6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의복구매 평가 기준과 구매 장소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0(5), pp.504-517.
 - 57) 최정원 (2010). 신중년층 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주관적 연령에 따른 추구의복이미지 및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
 - 58) 이미숙. 앞의 책, pp.27-31.
 - 59) 김지현. 앞의 책, p.26.
 - 59) 박혜순. 앞의 책, pp.1-70.
 - 60) Larson, J. H. and Holman, T. B. 앞의 책, pp.228-237.

Th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Lifestyl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n Clothing Behavior of Housewives

Lee, Keum Sil · Nam, Mi Woo[†]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Jang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and Beauty, SeoKye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on clothing behavior (celebrity imitative behavior, luxury brand purchasing behavior, psychological dependence on clothing) and to elucidate the variables affecting clothing behavior. The subjects were 258 housewives between the ages of 30 and 60,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do. First, two factors were derived from factor analysis of marital satisfaction (content marriage; relationship with husband). From financial stress, two factors (preliminary expenditure stress, basic expenditure stress) were derived. Secondly,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using factor scores based on marital satisfaction identified housewives into a dissatisfied group and satisfied group. The age and duration of marriage in the satisfied group were relatively lower than the dissatisfaction group. Self-esteem, financial stress, celebrity imitative behavior, buying and appearance-related lifestyle in the satisfaction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dissatisfaction group. Third, the variables that affect celebrity imitative behavior in the satisfied group were interest in appearance(+) and self-esteem(-). For psychological dependence on clothing, preliminary expenditures stress(+) and appearance interest(+) were significant affecting variables. Significant affecting variables on luxury brand purchasing behavior were found to be interest in appearance(+) and economic factor(-). For the dissatisfied group, interest in appearance(+) affected celebrity imitative behavior, and interest in appearance(+) and preliminary expenditure stress(+) affected psychological dependence on clothing. Interest in appearance(+) was identified as an affecting variable on luxury brand purchasing behavior.

Key words: marital satisfaction, celebrity imitative behavior, luxury brand purchasing behavior, psychological dependence on clothing, lifestyle